

영어 중시 교육정책의 계층적 권력효과:

말레이시아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서연**

요 약

이 논문은 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영어를 강조하는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이미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한층 더 제한하고 이들의 박탈감을 강화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연구자가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역에 위치한 한 공립중등학교에서 수행한 현지조사에 기반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료와 전문가들이 영어를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는 반면, 도시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자신들과 사회적 연관이 없는 부유한 엘리트들의 언어로 인식한다. 본 논의를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두 집단의 상이한 계층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영어 중심의 엘리트적 언어규범이 일선학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뿐만 아니라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교육 받은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좌절감과 박탈감을 분석한다. 이 학교에서 관찰되는 일상화된 좌절감과 박탈감은 영어를 강조하는 정책이 기존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교육정책, 불평등, 계층, 국제화, 영어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08-362-B00018). 이 논문의 초고는 2012년 한국동남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초고를 읽고 생산적인 비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연구교수

I. 영어의 재도입과 교육정책의 계층적 권력효과

2003년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과목을 국가공용어인 ‘바하사 말레이시아’ 대신 영어로 가르치는 정책인 ‘이템스(ETeMS: English for Teaching Mathematics and Science 또는 PPSMI: Pengajaran dan Pembelajaran Sains dan Matematik Dalam Bahasa Inggeris)’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2년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Mahathir Mohamad)가 공립학교에 영어를 재도입하는 것을 제안한지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서, 영국식민정부의 언어였던 영어가 말레이시아에서 공용어의 지위를 상실한지 36년 만의 일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일상과 학업에서 영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영어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도입이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책결정자들의 주장이 가진 권력효과를 분석한다. 상이한 배경을 지닌 학교에 엘리트 언어규범을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권력효과는 국가정책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추상적인 집합체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망 속에서 상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들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대조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쿠알라룸푸르 시내 두 공립중등학교에 대한 연구자의 비교연구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소위 “명문학교”에 재학 중인 도시 중상층학생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강화시킨 반면,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차별적 효과를 지닌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는 두 학교 중 쿠알라룸푸르 북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잘란리마우 공립중등학교(Sekolah Menengah Kebangsaan: SMK Jalan Limau)의 사례를 분석하는데 집중한다.¹⁾

1) 잘란리마우에서의 연구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초까지 이루어졌으며, 이후 4개월여 동안에는 비교연구를 위해 도시 중상층가정 출신 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비평준 공립중등학교인 타만라야(SMK Taman Raya)에서 참여관찰을 행하였다. 이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영국의 식민지배를 겪은 다민족국가(multiethnic state)인 말레이시아에서, 언어적 다양성은 민족과 계층간의 차이와 불평등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식민지의 엘리트와 대중에 대해 대조적인 접근방식을 취한 영국 식민정부의 교육정책은, 영어를 단지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닌,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과 이에 상응하는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이들을 생산하고 표현하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만들었다. 독립 후 10년이 지난 1967년에 토착어인 말레이어에 기반한 바하사 말레이시아(Bahasa Malaysia)가 유일한 국가공식어가 되었지만, 영어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영어의 권위는 식민지 엘리트 교육의 수혜자들이 독립국가의 지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당부분 재생산되었다(Fernando 1970; Pennycook 1994; Scott 1968; Wang 1970). 이들은 말레이 민족주의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신들이 지닌 영어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어를 엘리트적 언어규범의 핵심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독립 이후 상당기간동안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엘리트의 영어선호가 1990년대 이후 국제화 논의의 급격한 부상과 더불어 국가의 교육과 언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본다. 정부는 국제화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공립학교에 영어를 재도입하였지만, 계층에 따른 문화양상을 보이는 말레이시아의 교육제도 내에서 영어의 재도입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어가 역사적으로 매개해 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언어정책은 유일한 국가공식어인 바하사 말레이시아와 출신민족에 따른 “모국어”의 사용에 주로 의존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영어중심의 엘리트적 언어규범을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틀로 받아들이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영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교육정책이 가진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효과가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구도 안에서 종종 사회경제적 강자와 약자를 대체하는 범주로 사용되어 왔던 “말레이”와 “비말레이”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말레이 정치엘리트가 주도하는 연립정부는 한편으로는 말레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내세워 바하사 말레이시아 진흥에 앞장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영어사용능력과 국가발전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말레이 주도의 정부가 기존에 보여주었던 이중적 태도는, 영어사용의 확대를 권장하는 최근의 정책변화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매개로 한 공공교육의 최대 수혜자로 간주되었던 말레이들을 영어사용능력에 있어서 가장 “낙후된 집단”으로 지목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북부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잘란리마우 공립중등학교의 학생구성은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가르치는 공립학교들이 말레이들을 위한 배타적 교육기관이 아니며, 오히려 영어는 물론 모국어 교육의 기회에서조차 소외된 저소득층 비말레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족과 언어배경은 다르지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유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바하사 말레이시아는 공용어로 통용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반면에 다양한 민족출신인 이 학교 학생들의 절대 다수는 영어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영어사용능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극소수의 영어사용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영어를 자신들과 사회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영어를 “백인들의 언어” 또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유층의 언어”로 규정하는 일부 학생들의 언급을 통해 드러났다.²⁾

2) 이는 연구자가 조사했던 또 다른 학교인 타만라야 공립중등학교의 경우와 대조된다. 학생들의 민족별 구성은 잘란리마우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도시 중상층 가정출신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비평준 “명문학교”인 타만라야의 경우, 단일국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어/말레이

또한 이 학교 대부분의 교사들, 그중에서도 특히 40대 중반 이하의 교사들은 1970년대 이후 바하사 말레이시아라는 단일 공용어를 통해 언어적으로 통일된 교육제도의 산물로서 이 언어를 교사로서의 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매개어로서 사용해왔다. 비록 교사들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계 교사들이 비말레이계 교사들에 비해 더 전적으로 말레이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 학교의 중국계와 인도계 교사들 또한 영어교사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거의 없었다.³⁾ 급작스러운 영어의 제도입은 이들이 지금까지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로 사용했던 바하사 말레이시아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었다. 특히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하사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로 단기간에 바꾸어야만 했던 수학과 과학과목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교사로서의 권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영어를 생소하게 느끼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과 영어에 서투른 교사들 간에 영어를 매개로 지식의 전달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학과 과학수업시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자신들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된 엘리트적 언어규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이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제약을 개인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일부 학생들은 영어가 사회적 “구별짓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고립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데 부담을 느꼈다(Bourdieu 1986; Willis 1977). 결과적으로 영어의 제도입은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향조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이중언어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다.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영어사용가정 출신인 이 학교에서 영어는 출신민족에 관계없이 널리 공유되었으며, 특히 중국계와 인도계 학생들의 대다수는 “모국어”인 만다린이나 타밀보다 영어를 우선시 하는 태도를 보였다.

3) 대조적으로, 타만라야와 같은 “명문학교”들은 영어에 익숙한 교사들을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장기근속시킴으로써 타 학교에 비해 영어사용에 능통한 교사들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다.

II. 말레이시아에서 영어의 지위와 역할 변화

1957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주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인 말레이시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의 복잡한 이민과 정착의 역사를 반영하는 언어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의 다수민족을 형성하는 말레이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의 말레이어를 구사하며, 중국계는 중국어 학교들이 공용어로 채택하는 만다린(Mandarin)을 포함하여 광둥어(Cantonese), 하카(Hakka), 호키엔(Hokkien), 테오추(Teochew) 등을, 인도계는 타밀(Tamil)을 비롯하여, 텔루구(Telugu), 말라얄람(Malayalam), 펀자비(Punjabi) 등의 언어를, 그리고 토착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레이시아에 속하는 지역에서 공용어의 지위를 누린 적이 있는 언어는 한때 식민종주국의 언어였던 영어와 독립국가의 유일한 공용어인 바하사 말레이시아에 국한된다. 이 두 언어는 때로는 경쟁적이고 때로는 상호보조적 관계에 놓이면서 상이한 종류의 권위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해 왔다.

영국식민정부는 간접통치(indirect rule)의 원칙에 따라 전통 사회질서와 문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식민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원칙은 대다수의 식민대중들을 위한 “모국어학교(vernacular schools)”와 소수의 식민엘리트 양성을 위한 “영어학교(English schools)”를 구분하는 정책으로 표현되었다. 계층에 따라 그 목적이 차별화된 이원적 교육정책은 식민정부가 식민지 주민들에게 적용한 “원주민(natives 또는 bumiputera)”과 “이민자(immigrants 또는 pendatang)”의 구분을 통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모국어학교”들은 출신 민족에 따라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문자해독능력을 포함한 가장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식민정부는 “원주민”인 말레이들의 모국어 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반면, 주로 중국계와 인도계로 이루어진 “이민자들”은 모국어 교육을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

도록 하였다. 영어로 이루어진 엘리트 교육의 경우, 이를 “원주민”인 말레이들에게 확대하는 것은 이들을 전통 사회질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그 대상을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비말레이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 등 기존 말레이 지배계층의 자제들로 제한하였다. 이들은 주로 영어로만 제공된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배타적인 수혜자로서 식민정부의 운영과 식민지 경제개발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족의 차이를 넘어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닌 식민지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Scott 1968; Wang 1970). 결국 영국의 식민정책이 초래한 영어사용능력의 불평등한 분포는 식민지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차별을 매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별이 “이민자와 원주민” 또는 “비말레이와 말레이”의 구분과 복잡하게 얽히는 결과를 낳았다.

바하사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 이후 10년간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되다가 1967년에 단독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식민지의 영토경계를 계승하였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함하는 신생 독립 국가에서 공통의 언어가 담당하는 국가통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언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은 비로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일체감과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Asmah Haji Omar 1982, 20; Fishman 1968, 6). 그러나 독립 초기 영어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민족정당의 합의체로 운영된 말레이시아 정부는 영어의 지속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민족에 따른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접근을 취하였다. 그러나 1969년 발생한 소요는 정부가 언어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을 포기하고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강조하는 일원주의적 접근을 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70년 도입된 신교육정책(New Education Policy)은 기존에 말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던 학교들, 즉 영어, 중국어 또는 타밀어로 운영되던 학교들을 모두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사용하는 학교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초등교육에서 시작된 바하사 말레이시아의 의무사용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1983년에는 대학교육에까지 확대되었다. 바하사 말

레이시아의 의무적 사용은 공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학력 인증시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강제되었고 그 결과 바하사 말레이시아는 다민족사회의 단일공용어로서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⁴⁾ 이러한 변화는 또한 이전까지 주로 영어로 이루어지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바하사 말레이시아가 국어로서의 배타적 권위를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말레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화 과정을 거쳐 다민족 사회의 공용어로 쓰이게 되면서 발생한 모호한 정체성의 문제였다. 말레이들의 언어를 뜻하는 “바하사 플라유(Bahasa Melayu)”와 말레이시아의 언어라는 의미를 지닌 “바하사 말레이시아(Bahasa Malaysia)” 사이에서 빈번하게 변경되어 온 이 언어의 공식명칭은 이러한 모호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⁵⁾ 특히 말레이 정당이 주도하는 말레이시아의 연립정부는,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단일 공용어로 채택하는 공교육제도가 비말레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집중되었던 말레이들의 계층상승을 돕는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바하사 말레이시아의 사용이 민족의 구분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국민통합의 언어로 인식되는데 큰 제약을 가져왔다.

국가 공용어로서의 불분명한 정체성과 더불어,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영어의 영향력 또한 바하사 말레이시아가 국가의 공식어로서 독보적인 권위

4) 국가에 의해 표준화된 학력인증체제에 따르면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출신민족과 언어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정수준의 바하사 말레이시아 사용능력을 획득해야만 한다. 심지어 중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립학교의 학생들도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이루어지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5) 1957년 독립 당시 이 언어의 공식명칭은 바하사 플라유였다. 그러나 1969년의 소요 이후 이 명칭은 민족의 구분을 넘어서는 국가적 단합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변경되었다. 이는 다시 1986년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개혁적 말레이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입각하면서 바하사 플라유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2007년 4월에 말레이시아 내각은 국어의 공식명칭을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다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Star 2007/06/04).

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바하사 말레이시아와 영어의 관계는 식민지로부터의 언어적 독립을 시도한 신생국가에서 식민언어와 독립국가의 공용어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특성을 보여 준다(Fernando 1970, 25). 정치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은 한편으로 영어가 식민지 사회의 불평등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가 “발전, 근대화,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언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ernando 1970, 3; Pennycook 1994, 187). 예를 들어, 모두 말레이 출신인 역대 총리들은 높은 수준의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국가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영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따라서 국민들이 결코 영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Funston 1980, 66; Ozog 1990; Tan 1997, 62). 또한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언어규범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입학과 유학 그리고 취업 등의 기회에 접근이 제한되었던 중상층 비말레이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계속해서 영어의 권위에 의존해야만 했다.

엘리트들의 지속적인 영어선호에도 불구하고 말레이 민족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말레이정당이 주도하는 정부는 1990년대까지 영어중심의 엘리트적 언어규범을 적극적으로 공교육제도에 수용하지 않았다. 비록 공립학교 교과과정에는 영어가 포함되었지만 실제 영어수업시간은 중등학교에서조차 1주일에 2시간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다. 기존의 영어학교들이 1970년을 기점으로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사용하는 학교로 전환되고 영어가 더 이상 수업의 매개어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습득되고 재생산되었다. 학생들의 영어사용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가정환경으로, 부모가 영어를 주로 사용하거나 영어 사교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였다. 또한 영어가 국가 공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 중상층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일

부 공립학교들은 공공연하게 바하사 말레이시아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비평준화 학교로 운영되거나 중상층 거주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계층적 배타성을 유지하였다. 부유층 학생들과 각종 해외 유학 장학금 수혜자에게만 열려있던 영어권 유학의 기회 또한 영어사용능력이 소수의 국민들에게 집중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 언어규범이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자원을 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일부 계층만이 영어를 강조하는 엘리트적 언어규범을 체득하고 재생산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영어를 ‘소외와 불평등’의 언어가 아닌 ‘기회와 발전’의 언어로 경험해 온 엘리트들은 영어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매개해 온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대체로 간과하였다. 이들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영어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어사용능력의 차이를 개인적인 노력의 차이로 설명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국어 진흥정책이 활발히 진행 중이던 70년대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으며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직을 역임했던 마하티르는, 더 이상 교육의 매개어로 사용되지 않는 영어를 배우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개인적인 노력과 의지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는 더 이상 수업의 매개어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영어실력을 갖추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 ... 하지만 말레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영어실력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 영어를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성을 숨기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Mahathir 1986[1976], 43).

마하티르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부족한 영어실력을 제도나 사회구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나약한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뛰어난 영어실력을 갖추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도덕적 비난과 공격이 영어교육에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엘리트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는 엘리트의 영어선호에도 불구하고, 연립정부를 주도하는 말레이 정당이 말레이 민족주의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엘리트들의 주장은 공립학교에서 영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않았다. 오히려 1980년대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은 바하사 말레이시아의 사용을 초·중등교육을 넘어 대학교육까지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영어가 다시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기점이 된 것은 1995년에서 1996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교육분야 입법이었다.⁶⁾ 이들 법안들은 이전까지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던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동시에, 이들 사립교육기관들이 영어로 된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해외 대학과의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로 언급된 것은 해외유학의 확대를 통한 국부의 유출이 1980년대의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었다(Puteh 2010, 195; Tan 2002).

나아가 정책입안자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어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국제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전체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제3차 장기발전계획(The Third Outline Perspective Plan 2001-2010)’은

6) 1995년에 도입된 새로운 ‘교육법안(Education Bill)’과 ‘대학교 및 대학에 관한 조례 수정안(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 (Amendment) Act)’ 그리고 1996년에 도입된 ‘고등교육 국가위원회 조례(National Council on Higher Education Act 1996)’와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조례(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ct)’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이 말레이시아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천연자원의 수출과 제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더 높은 단계의 산업화를 이루어 내고, 나아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Economic Planning Unit 2001). 또한 교육부는 ‘교육발전계획(Education Development Plan 2001-2010)’을 통해 국제화의 흐름을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가의 교육정책이 ‘지식기반경제(a knowledge-based economy: K-economy)’의 수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2003).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급작스러운 제안에 따라 2003년에 이루어진 영어의 부분적 재도입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거시적 정책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엘리트적 경쟁의 논리와 영어선호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변화는 불평등한 경제사회적 위계질서의 상징으로서 영어가 가지는 의미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공이익”의 추구라는 논리로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전문가”로서 배타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가지는 권력효과를 여실히 드러낸다(Bourdieu 1998, 38; Foucault 1991; Li 2007, 5-7). 정책 결정에 구체적인 정치적 계산이 의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위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들 개인의 사회적 경험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국제화 시대의 국가발전에 있어 영어가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영어와 맺어온 역사적 관계가 상이하므로 따라서 이들에게 영어가 전혀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엘리트의 영어선호에도 불구하고 바하사 말레이시아 사용의 당위성이 강조되던 1990년대 이전과는 달리, 영어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통해 확대된 공교육제도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마하티르를 비롯하여 국제화와 영어의 역할을 강조하

는 정부관료들은 영어가 1967년에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표준화된 말레이어인 바하사 말레이시아가 단일 공용어로 채택된 이후 국민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현격히 저하되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이루어진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New Strait Times 2002/05/07; Star 2003/10/31, 2004/02/15).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관료들은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들이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교육부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이들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하티르는 나아가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들이 국가 공통의 언어와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민족출신의 국민들을 단합시킨다는 소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말레이학교,” 즉 말레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영어사용과 경제발전을 결부시키는 논리와 결합하면서 언어의 차이를 통해 말레이계 국민들의 비말레이계 국민들에 대한 상대적인 ‘후진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즉 비말레이들은 수준 높은 영어구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로 “말레이학교”에서 교육받은 말레이들은 영어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배척하여 결과적으로 비말레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립학교가 말레이들만을 위한 학교가 되었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지적과는 달리,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한 학교들을 비롯하여 도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은 다양한 민족출신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오히려 공교육제도 내부에는 개별학교의 평준화 여부와 이들이 위치한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계층의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정책을 경험하는 방식은 이러한 계층의 구분을 확연하게 반영하였다. 이미 공공연하게 영어의 사용을 권장해 왔던 비평준학교들이나 중상층지역의 공립학교들의 경우, 새로운 정책이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가언어규범과 영어에 비중을 두는 자신들의 언어규범 사이의 간극을 메

워 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영어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⁷⁾

그러나 도시 저소득층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던 도시 변두리 학교의 “모범생”들은 영어가 재도입되면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영어는 물론 바하사 말레이시아에도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 출신의 비말레이계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영어화 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영어보다 접근이 용이한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버텨내야 했다.

III. 현지조사

연구자는 쿠알라룸푸르 북부에 위치한 잘란리마우 공립중등학교(Sekolah Menengah Kebangsaan: SMK Jalan Limau)에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참여관찰을 행하였다. 이 학교는 도시 변두리 저소득층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모든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2003년 이전까지는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이 언어로 가르쳤다. 5년제인 말레이시아의 중등학교는 대부분 부족한 학교시설로 인

7) 이 부분의 내용은 비평준 공립중등학교인 타만라야에서 연구자가 면접했던 교사와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 학년에 따라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며, 이러한 상황은 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하루에 약 네 시간에 불과했다.⁸⁾ 연구자는 수학과 과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이템스(ETeMS: English for Teaching Mathematics and Science)’ 정책이 적용된 첫해에 중등학교에 입학한 3학년(Form 또는 Tingkatan 3) 학생들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면접하였다. 학생들과의 면접은 대부분 말레이어로 이루어졌으며 교사들과의 면접은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행해졌다.

연구자가 교사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견해를 직접 물어보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템스 정책은 도입 이전부터 격렬한 찬반 논의에 휩싸였고, 논란의 확대가 가져올 정치적 혼란을 우려한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국가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 ISA)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Star 2002/08/12). 따라서 교사들은 이템스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면서 일단 몇 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두고 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영어수업시간 이외에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 학교에서 영어 사용을 대폭 확대하라는 교육부의 급작스러운 지시는 교사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영어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주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템스의 도입 이후에 이 학교에서 전개된 상황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는 주로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에 따르는 당황스러움과 자괴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의 경험이 모든 공립중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관찰되고 경험되는 특수한 상황은 다양한 민족과

8) 연구자가 조사한 비평준 학교인 타만라야를 비롯한 일부 학교들은 대학준비반에 해당되는 6학년 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고 따라서 대학진학자가 그리 많지 않은 잘란리마우에는 6학년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오전/오후반 제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추가 재정과 교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일부 학교들은 다양한 특별활동을 기본교과과정에 추가함으로써 실제 수업시간을 연장시킨다.

언어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이 학교에 모이게 만든 배제의 과정과 연관된 것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근거리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학업성적과 평판이 좋은 공립중등학교들은 대부분 중산층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은 대체로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자신들의 거주지 인접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비평준 공립중등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거나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력평가시험(UPSR: Ujian Penilaian Sekolah Rendah)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거나 사립학교 등록금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대부분의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에게 인접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된다.

연구 당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은 “프로젝트 뼈루마한 락얏(Projek Perumahan Rakyat)” 또는 PPR이라 불리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이들 아파트 단지들은 쿠알라룸푸르 시청이 2005년까지 시내의 판자촌을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으로 1997년에 시작한 주택사업의 결과물로, 기존 판자촌 거주민들은 이들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다른 판자촌이나 임시 집단거주시설로 이주하였다. 저소득층 아파트에 살지 않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민족과 언어에 따라 명확하게 분리되어 민족집단거주지역(ethnic enclave)의 성격을 지닌 동네에 살았다. 학생 부모들의 직업은 주로 노무직, 하위사무직, 기술자, 노점상인, 가게점원, 택시 또는 트럭 운전자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사 당시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이 학교에서 매우 활발했던 교과서 대여프로그램(Skim Pinjaman Buku Teks)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프로그램은 월 가구소득이 1,000링깃(Ringgit, 당시 한화가치로 약 35만원) 이하인 가정 출신 학생들이 교과서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3학년의 경우 1/3가량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이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낮은 경제적 지위를 공유하고 있었던 반면, 학생들의 민족과 언어 배경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5년의 학교통계 자료

에 따르면, 당시 이 학교에는 모두 18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는데, 이들 중 말레이계는 55%, 중국계는 28%, 인도계는 15%, 그리고 기타민족출신은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전체 민족 별 인구 구성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⁹⁾ 비록 정확한 민족별 학생구성비는 학교마다 달랐지만, 잘란리마우와 연구자가 조사한 또 다른 학교인 타만라야 공립 중등학교를 비롯하여 시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공립학교들이 다양한 민족 출신의 국민을 통합한다는 공교육체제 수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 당시 잘란리마우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의 상당수는 민족에 따라 분리된 동네에서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에 따라 다른 초등학교 배정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의 출신 초등학교는 세 가지 유형, 즉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사용하는 공립초등학교(Sekolah Kebangsaan), 중국어를 사용하는 공립형초등학교(Sekolah Jenis Kebangsaan Cina), 타밀어를 사용하는 공립형초등학교(Sekolah Jenis Kebangsaan Tamil)로 나뉘어져 있었다. 학생들의 출신민족과 출신학교의 구분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이 학교 중국계 학생들의 90% 이상은 중국어 초등학교 출신이었다.¹⁰⁾

중국계와 인도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립형초등학교를 선택하는 동기는 다양했다. 그 중 하나는 만다린이나 타밀어가 공식어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립형초등학교는 자녀들이 “모국어(mother tongue)”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¹¹⁾ 또한 같은 민족 출신의 학

9)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민은 말레이 63.1%, 중국계 24.6%, 인도계 7.3%, 비말레이 원주민(non-Malay Bumiputera) 4.3%, 기타 0.7%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0).

10) 예외로는 말레이어 초등학교를 나온 중국계와 인도계 학생들, 그리고 극소수이지만 중국어 초등학교를 나온 말레이계와 인도계 학생들이 있었다.

11) 각 민족집단 내부의 언어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모국어”는 만다린이고 인도계의 모국어는 타밀인 것으로 여겨진다.

생들이 한 학교에서 모국어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잃기 쉬운 민족 고유의 관습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립형초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 이외에도 교사들은 공립형초등학교가 특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중국계와 인도계 학부모들에 의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사용하는 공립초등학교에 보낼 경우, 교사들과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자녀의 학업을 보조해 주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¹²⁾ 그러나 공립형초등학교를 나온 저소득층 출신의 중국계와 인도계 학생들은 자신들을 받아주는 유일한 상급 교육기관인 공립중등학교에서 결국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소외를 경험해야 했다.

잘란리마우 중등학교에서 특이한 점은 재학 중인 중국계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보다 한 살이 많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6년간의 초등교육을 마치면 초등학력평가시험(UPSR)을 치른 후 중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어인 바하사 말레이시아 과목에서 낙제를 할 경우, 낙제생들로 이루어진 특수학급(Remove Class)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레이어를 이수한 후 다른 학생들보다 한 해 늦게 중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게 된다. 조사대상 학교는 2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국어 초등교육을 받은 중국계 학생들이었다.

중국계 낙제생들이 이 학교에 집중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주로 중국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초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상당수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중국어 중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어 또는 타

12)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잘란리마우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도시 중상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평준학교인 타만라야의 경우 재학중인 중국계와 인도계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사용하는 공립초등학교 출신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밀어 초등교육기관들을 공교육체제 내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독립이전부터 존재했던 중국어 중등학교들이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사용하는 학교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립 중국어 중등학교에 대한 저소득층 중국계 학생들의 접근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학생이 중국어 중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더라도 부모가 사립학교 등록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사용하는 일반 공립중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 초·중등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2005년 기준으로 공립중등학교의 1년 등록금이 47링깃에 불과했던 데 반해, 중국어 사립중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 3,000링깃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했다. 대부분 저소득층 출신인 잘란리마우의 중국계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중국어로 운영되는 사립중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따라서 저소득층 출신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중국계 학생들은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운영되는 공립중등학교에 진학해야만 했다.

잘란리마우 공립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언어사용방식은 단일국어 채택을 통한 국민통합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학교에서는 민족과 언어에 따른 학생들 간의 분열이 또래집단의 형성을 통해 매우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즉 학교의 공용어가 바하사 말레이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 학생들은 구어체 말레이어로, 중국계 학생들은 만다린과 광둥어를 포함한 중국어로, 그리고 인도계 학생들은 타밀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배타적인 민족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같은 학교의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종종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대화해야 할 경우가 생기곤 했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소통을 위해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말레이어였다. 또한 다른 민족과 언어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생활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최대한 많

은 숫자의 학생들에게 교과내용과 지시사항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또한 말레이어였다.

조사 초기에 연구자는 이 학교의 중국계 학생들과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해야 할지를 고민한 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언론보도나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계가 말레이계보다 영어를 잘 한다는 일반화된 주장을 수없이 접한 바 있었다. 또한 이 학교에서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만났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상당수는 연구자가 말레이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곧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중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곤 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잘란리마우의 중국계 학생들에게 영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한 학생은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해를 할 수 없으니, 말레이어로 이야기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중국계 학생들의 경우, 연구자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말레이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학생들 또한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분류되는 일부에 불과했다. 특히 말레이어 이해도가 매우 낮은 일부 중국계 학생들은 말레이어로 진행되는 수업시간에 교실 뒤쪽 자리에 모여 앉아서 수업내용은 뒷전으로 한 채 친구들과 중국어로 잡담을 하거나 낮잠을 청하곤 했다.

민족과 언어에 따라 배타적인 집단을 이루며 제한된 수준의 말레이어 사용능력을 지녔던 학생들과는 달리, 최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경우 출신 민족과 언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바하사 말레이시아 사용능력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중국어나 타밀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중국어나 타밀어에 익숙한 일부 비말레이 교사들은 말레이어 사용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출신의 중국계와 인도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들에게 통역자와 상담자의 역할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영어와 말레이어만을 사용하는 일부 비말레이 교사들과 교사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말레이 교사들은, 학생들이 바하사 말레이시아의 사용을 요구하는

학교의 언어규범을 따르는가의 여부에 따라 “좋은 학생”과 “(성취도가) 약한 학생”으로 구분하면서 학교에서 중국어 또는 타밀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곤 하였다.

상이한 민족출신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잘란리마우 공립중등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고 생활하게 만든 다양한 선택과 배제의 과정은,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사용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출신민족에 관계없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대중적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영어에 비해 훨씬 접근 가능한 언어로 여기는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들에게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가언어규범에 더하여 영어중심의 엘리트적 언어규범을 적용하는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불평등과 소외의 심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IV. 영어사용과 사회적 거리감의 표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잘란 리마우 공립중등학교에서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영어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40대 중반 이상으로 교육제도가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통일되기 이전에 영어로 교육을 받은 교사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출신인 소수 학생들에 국한되었다. 비록 교과과정에는 영어가 주요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영어 사용환경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는 이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구사능력을 제한된 수업시간을 통해 획득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이들이 영어사용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제한적으로나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사와 학생들조차도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영어사용의 사회적 의미, 즉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

람들 앞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했다(Fernando 2004, 10).

영국인들이 말레이시아 지역의 통치권을 잃고 영어 또한 공용어의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인 지금에도 영어가 원래 지배집단인 “백인들의 언어”라는 인식은 사회 일부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영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유층의 언어”라는 인식은 독립 이후에 영어가 백인/비(非)백인의 구분을 넘어 상이한 계층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어를 백인들의 언어 또는 교육받은 부유층의 언어로 규정하는 방식은 연구자가 조사 학교의 교사나 학생들과 나눈 대화에서 자주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과학과목을 가르치는 한 말레이계 여교사는 영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레이들은 보통 ‘저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요.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기도 하죠. 만약 이웃집 아이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아이들도 영어를 저렇게 잘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영어를 좀 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자면 인도계가 다른 민족보다 영어를 잘하는데 아마 역사랑 환경 때문에 그런가 봐요.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들 같은 언어만을 사용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사람들은 누군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면 그냥 ‘저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죠. 루마 방글로(rumah banglo)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루마 스명안(rumah settinggan)에 사는 사람들이랑 루마 떼레스(rumah teres)에 사는 사람들만 비교해 봐도, 루마 떼레스에 사는 사람들이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이 교사는 사회경제적 위계질서의 최상위층에 속하면서 주로 독립부지에 지어진 고급대형주택, 즉 루마 방글로(rumah banglo)에 사는 사람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영어사용자들로서 다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영어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 선생님의 따르면 주로 보급형주택 또는 루마 테레스(rumah teres)에 거주하며 중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부유층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이는 양가감정이라기보다는 순수한 부러움에 가까웠다. 이 교사는 영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 즉 루마 스멍안(rumah settinggan)이라고 불리는 빈민촌의 판자집이나 민족에 따라 분리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교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말레이계 교사들은 같은 민족출신의 교사들 앞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였다. 영어사용의 필요성과 영어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암묵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가 통용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영어실력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체면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다. 실제로 거침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한 젊은 말레이 영어교사는 다른 말레이계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으며, 이 교사는 다른 말레이계 교사와 어울리는 대신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일부 중국계와 인도계 교사들과 가깝게 지냈다. 비말레이교사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영어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소위 “영어학교”를 나왔으며 주로 영어와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교사들과 “모국어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같은 민족출신 교사들과 주로 모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교사들 사이에는 미묘한 사회적 구분이 존재했다.

영어에 대한 양가감정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교사들보다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이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강력하게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이 학교 3학년의 몇몇 말레이 여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마친 후 연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영어로 치른 수학과 과학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불평하면서, 왜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이들 과목을 “백인들의 말” 혹은 “짜깁 오랑 뿌떼(cakap orang putih)”로 배워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자신들 끼리 있을 때 영어를 공식 말레이어 명칭인 “바하사 잉그리스(Bahasa Inggeris)”라고 부르기보다는 “짜깁 오랑 뿌떼” 혹은 “바하사 오랑 뿌떼”라고 칭한다면, 흔히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스빠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스빠킹”은 영어단어 스피킹(speaking)의 현지화 된 용법으로서 단지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를 잘 한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상대방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인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과는 다른 부류에 속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거리감은 “아주 부자이며 항상 영어를 사용하는” 고모를 둔 한 말레이계 학생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학생에 따르면 “영어를 쓰는 부자 고모”의 아들인 사촌동생은 당시 겨우 세 살이었지만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 학생은 어린 사촌동생이 “존경스럽다”고 하는 한편, 주변사람들에게 주로 영어만 사용하는 사촌동생이 영어를 못하는 자신에게 인도네시아 출신 부모에게서 배운 인도네시아식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을 때는 묘한 감정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학생은 고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영어로 말을 걸면 그 사람은 자신과 다르다는 느낌(rasa lain)을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서로 다르다는 느낌은 이 학교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영어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표현되었다.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잘란리마우 같이 열악한 환경의 학교는 영어 사용자인 자신에게 적합한 곳

이 아니라는 생각을 연구자에게 털어 놓고는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영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세련된” 문화적 취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며 “촌스런” 취향을 지닌 잘관리마우 대다수 구성원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 사용방식과 문화적 취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종종 자신들이 경험한 바 있는 명문 비평준학교나 우수한 중상층지역의 학교의 사례를 들곤 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세련된” 영어사용자로서의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잘관리마우에서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해야 했다. 특히 3학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극소수의 말레이계와 인도계 남학생들은 서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영어로 된 대중문화를 공유하는 배타적인 또래집단을 이루면서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또래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몇몇 영어사용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톨이로 보냈다.

V. 저소득층 학교에 엘리트 언어규범을 적용하기

잘관리마우 학생들이 공유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모이게 한 선택과 배제의 과정,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영어의 사회적 의미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정부정책의 변화가 과연 이 학교 구성원들의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엘리트 집단에게는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영어사용의 합리성이 저소득층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가? 다음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수립된 새로운 교육정책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개인과 집단들이 교육제도와 맺어온 특수한 관계에 작용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상이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난 30여 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영어가 아무런 공식적 지위를 가지지 않

있던 상황에서,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교육받은 40대 초반 이하 교사들의 대부분은 담당 교과내용을 영어로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영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지만 정규교육은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받은 일부 교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어를 수업의 새로운 매개어로 사용해야 하는 수학과 과학과목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미 여러 해 동안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가르쳐온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 학기를 바로 앞두고 교과내용과 관련된 모든 용어를 영어로 새로 암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담당 과목을 영어로 다시 익힌 이후에도 영어를 사용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교사들은 영어로 수업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가 제공한 1개월간의 영어연수는 이들의 영어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질을 부정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강요하였다. 한 말레이계 과학교사는 자신이 영어로 처음 진행하는 수업을 앞두고 바쁘게 준비해야 하며 열심히 준비한 이후에도 자신이 아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전만큼 잘 전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모두 자신이 “똑똑하지 않기(tak pandai)” 때문이라고 한탄하였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영어사용능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난관의 일부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이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자신들과는 사회적으로 거리가 있는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의 배타적인 언어로 경험해왔으며, 따라서 이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는 점이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사이에는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미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어느 정도의 영어사용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수업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석사학위를 소지하였으며 영어사용에 능통한 한 중국계 수학 교사가 수업시간에 영어로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다른 교사들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 교사의 유창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한 학생들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수단은 수업의 모든 내용을 영어에서 말레이어로 학생들에게 번역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미 오전/오후반의 운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영어 교과서를 말레이어로 번역해 주는데 할애해야 했다. 비록 일부 학생들은 말레이어로 교과내용을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교사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동안 침묵을 지키며 허공만 바라보던 학생들은 교사가 말레이어를 사용하면 비로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수업을 계속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 이후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참고서들이 영어로 출판된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중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을 마치면서 치르게 될 국가학력평가시험 또한 수학과 과학과목의 문제를 영어로 출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비록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어시험지와 더불어 바하사 말레이시아 번역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이 더 이상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수학과 과학 교과를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영어로 이루어진 새 교과서는 언어전환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전의 교과서보다 적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어를 학교에 재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첨단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결정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템스의 도입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하게 되는 지식의 양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정책이 초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학생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소위 “모범생”에 속하는 소수의 학생들은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이미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중상층 거주지역의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미 영어에 상대적으로 익숙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부모의 도움이나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에 기대어 새로운 언어 환경에 비교적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이러한 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은 주로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수학과 과학과목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잘란리마우의 “모범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영-말레이 사전을 찾는데 보내야 했다. 겨우 노력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익힌 후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영어문장을 통해 표현하고 증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서술형 문제에 답하는 과정에서 철실하게 경험하는 언어의 제약을 학생들은 “(머리에) 집어넣는 것과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별개(masuk lain, keluar lain)”라는 표현으로 요약하였다. 영어로 된 시험문제의 내용을 이해하였고 이에 답하기 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어문장으로 표현할 능력이 없으면 문제에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다. 한 3학년 학생은 이러한 상황에서 4학년에 올라가면서 일반적으로 모범생의 최우선 선택으로 여겨지는 자연계열(science stream)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연계열에 진학하게 되면 영어로 배우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학과 과학 과목이 전체 이수교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례함과 오만함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학년의 한 말레이 여학생은 자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영어를 사용하려고 애쓴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영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어사용능력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영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친구들 앞에

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차별의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학생은 친구들이 자신의 영어사용을 “잘난 척”으로 여기면서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것을 보고 영어를 가능한 자주 사용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역사적으로 영어사용능력을 획득할 기회에 접근할 수 없었던 도시 변두리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영어 중심의 엘리트 언어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이 학교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제약을 초래했다. 새로운 정책에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영어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영어의 사용이 사회적 우월함을 표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영어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이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는 언어사용 규범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언어규범에 적응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미래의 성공을 통해 보상받으리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어의 사용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VI. 결론

정부는 교육부문에서의 새로운 언어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전면에 내세웠다. 즉 교육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조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전체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도시 저소득층 학교의 사례는 영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한다. 마하사 말레이시아를 유일한 공식어로 채택하는 공립학교가 말레이계 국민들만을 위한 “말레이학

교”가 되었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공립 학교들은 다양한 민족과 계층 출신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반면에 영국 식민지시기에 엘리트 교육의 언어로 사용되었던 영어는 정부의 단일국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어/말레이어 이중언어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일부 비평준 공립학교와 중상층 밀집거주지역 소재 공립학교, 그리고 정부의 언어정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제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구분은 독립 후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 식민종주국의 언어였던 영어가 계층적 차이를 매개하는 언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새로운 교육정책인 이템스의 도입에 대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교적 바하사 말레이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영어를 구사하는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이나 도시 저소득층 지역 공립학교들은 급작스런 영어의 재도입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잘란리마우 공립중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영어 사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자신들과 사회적으로 거리가 있는 도시 중상층의 언어로 경험해 왔던 교사와 학생들은 새로운 언어규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하향조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연구자가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명문” 비평준학교인 타만라야 공립중등학교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들은, 이템스의 도입 이전부터 영어를 사실상의 공용어로 사용해 온 일부 도시 학교들의 경우 새로운 언어정책을 적극 환영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또한 공식적으로는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된 국가공통의 교육과정을 채택해 왔다는 점에서 급작스러운 언어의 전환에 적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구성원들은 바하사 말레이시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반 공립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 대해 자신들이 확실한 언

어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였다. 특히 중등학교 졸업 후 해외유학을 계획하고 있거나 국내대학 졸업 후 전문직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명문학교”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과목에 영어를 재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졸업 후 어차피 영어로 배워야 할 내용을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먼저 공부해야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 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교육제도 내부의 계층에 따른 구분과 그 매개수단으로서의 언어의 역할은 영어를 강조하는 새로운 언어정책의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정치적 논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새로운 언어정책이 점차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집단들의 반대 움직임도 서서히 수그러들 것이라는 정부 교육관계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템스에 대한 반대 운동의 세력과 영향력은 정책의 도입 후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던 계층의 공감대 속에 통해 점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주로 “모국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대중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족별 언어 및 교육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¹³⁾ 결국 2009년 3월 7일 경찰이 발포한 최루가스 연기 속에서 열린 대규모 반대집회 이후에, 정부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언어를 2012년부터 다시 점차적으로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언어정책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쿠알라룸푸르 교외 고학력 전문직 밀집거주지역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반대집회들을 촉발시켰다. 이들은 자녀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는 영어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수학과 과학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한 원하는 학교들에 한해서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정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Malaysiakini 2009/10/22; New Strait Times 2011/10/31).

13) 말레이어의 표준화와 말레이어 출판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국어편찬협회(Dewan Bahasa dan Pustaka)를 포함한 말레이 언어와 문학관련단체, 그리고 말레이시아 내 중국어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단체인 동지아오종(Dong Jiao Zong)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내부에서의 언어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각종 소수민족 언어관련 단체들이 영어의 재도입을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동일한 언어정책을 둘러싼 극단적인 의견의 대립은, 정부가 국제화에 대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던 새로운 교육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던 영어를 매개로 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분열이 정치적 영역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교육제도 내부에 존재하는 출신 계층에 따른 학교의 구분과 이를 매개하는 언어사용방식의 차이는 과연 정책결정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이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국제화 시대의 국가발전에서 영어가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영어와 맺어온 역사적 관계가 상이하며 따라서 이들에게 영어는 전혀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심지어 영어의 재도입을 주도한 정책결정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공공의 보편적 이익”을 최우선적 고려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비(非)정치적인 것인 반면,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특수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파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비난하였다(Malaysiakini 2002/05/15; Star 2002/12/09; New Strait Times 2003/07/22). 새로운 정책에 의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된 집단이 다시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대부분 엘리트학교나 비평준학교 출신인 정책결정자들이 영어를 ‘소외와 불평등’의 언어가 아닌 ‘기회와 발전’의 언어로 경험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상이한 계층에 대해 지닌 차별적 효과는, 급격하게 부상하는 국제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와 학업능력의 차이를 개인의 태도와 노력의 문제로 치부하는 엘리트적 인식과 결합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투 고 일 : 2012년07월02일]

[심사완료일 : 2012년08월08일]

[게재확정일 : 2012년08월15일]

참고문헌

- Asmah Haji Omar, 1982, *Language and Society in Malaysia*,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Bourdieu, Pierre, 1986, *Distinction*,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8, "Rethinking the State: Genesis and Structure of Bureaucratic Field," In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pp. 35-6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Economic Planning Unit, Prime Minister's Department, 2001, The Third Outline Perspective Plan 2001-2010.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Malaysia 2010.
- Fernando, Lloyd, 1970, *English, Literature, and Technology in South East Asia*, Kuala Lumpur: University of Malaya.
- _____. 2004, *Lloyd Fernando: a Celebration of His Life*, Kuala Lumpur (private publication).
- Fishman, Joshua A. 1968, "Sociolinguistics and the Language Problem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Joshua A. Fishman, Charles A. Ferguson, Jyotirindra Das Gupta, eds, *Language Problems of Developing Nations*, pp. 3-16,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Foucault, Michel, 1991, "Governmentality,"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pp. 87-10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unston, John, 1980, *Malay Politics in Malaysia: a Study of UMNO and PAS*, Kuala Lumpur: Heinemann Educational Books (Asia) LTD.
- Li, Tania Murray, 2007, *The Will to Improve: Governmentality, Development, and the Practice of Politic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Mahathir Mohamad, 1986, *The Challenge*, Petaling Jaya: Pelanduk Publications

(*Menghadapi Cabaran* 1976의 영문 번역본).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2003. Education Development Plan 2001-2010:
Generating Educational Excellence through Collaborative Planning.

Ozog, Conrad K. 1990. "The English Language in Malaysi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Language." In Richard B. Baldauf, Allan Luke, eds. *Language Planning
and Education in Australasia and the South Pacific*. pp. 305-318.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Pennycook, Alastair. 1994. *The Cultural Politics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Puteh, Ales. 2010. "The Language Medium Policy in Malaysia: a Plural Society Model?"
Review of European Studies 2(2): 192-200.

Scott, James C. 1968. *Political Ideology in Malaysia: Reality and the Briefs of an Elite*. Kuala
Lumpur: University of Malaya Press.

Tan, Ai Mei. 2002. *Malaysian Private Higher Education: Globalisation, Privatisation,
Transformation and Marketplaces*. Asean Academic Press.

Tan, Liok Ee. 1997. *The Politics of Chinese Education in Malaya 1945-1961*.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Wang, Gungwu. 1970. "Malaysia: Contending Elites." *Current Affaires Bulletin* 47(3): 35-48.

Willis, Paul. 1977.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신문기사

The New Strait Times, 2002/05/07, "Looking Back to English"

_____, 2002/05/11, "Maths, Science to be in English"

_____, 2003/07/22, "Don't Be Misled over Education Policy, Teachers Told"

_____, 2011/10/31, "Groups: Let's Focus on New English Policy"

The Star, 2002/08/12, "Don't Stroke Sentiments on English Issue"

_____, 2002/12/09, "Khir: Keep Politics out of Education"

_____, 2003/10/31, "Paving the Nation's Way to ICT"

_____, 2004/02/15, "Many IT Jobs, But Only for the Right Skills"

_____, 2007/06/04, "Back to Bahasa Malaysia"

Malaysiakini, 2002/05/15, "Toward a Multi-partisan Promotion of English"

_____, 2003/02/02, "Mother Tongue Education a Fundamental Right: Education Groups"

_____, 2009/07/08, "Language Switch Policy Scrapped"

_____, 2009/10/22, "Science and Maths: Parents Want English Policy Retained"

ABSTRACT

Privileging English to Globalize Education: the Deepening Educational Disqualification of the Urban Poor in Malaysia

CHOI, Seoyeon

HK Research Professor

So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IEAS)

This article analyzes the power effect of reintroducing English in Malaysian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students and teachers in a public secondary school located in a low-income area of Kuala Lumpur. Malaysian government introduced the new educational policy named ETeMS (English for Teaching Science and Mathematics), claiming that improving English proficiency among students would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serve the common interest of its people. The case study, however, demonstrates that the new policy furthered the educational marginalization of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Since the British colonial period, English mediated the educational and linguistic divisions among people from different ethnic and class backgrounds. The divisions had been unofficially reproduced by the pro-English post-independence elites even after the adoption of Bahasa Malaysia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I argue that the new policy officially endorses the imposition of elitist linguistic norm on the masses who has historically experienced English as the language of "rich and highly-educated people" rather than their own language. The reintroduction of English, therefore, reproduced and strengthened the class inequality among Malaysians that had been mediated by education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Keywords Educational policy, Inequality, Class, Globalization, English